

모두를 위한 학교, 공동체 중심으로의 학교

Everybody's Schools, Schools as Community Hubs



이 영 범 / 정회원,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Reigh, Young-Bum / Professor, GSAK, Kyonggi University
 ybreigh@hanmail.net

1. 학교, 변화하다.

지역과 공동체가 결합된 지역공동체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나선지 이미 오래다. 지역공동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양분된 사회구조의 권력관계를 재편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는 제3의 힘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시작은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운동이었지만 그 대안은 점차 사회적 변혁의 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변화를 꿈꾸는 시민의 주체적 역량이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작동하면서 이미 구조화되어 있던 사회의 제도 역시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기관으로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가장 강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이며, 지역공동체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생겨난 변화 중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의 변화이다. 학교, 이제 변할 때도 되었고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어떻게 변해야만 할 것인가?'이다.

학교 변화에 대한 욕구는 물론 교육 그 자체의 내부의 문제에서 제기된 이슈이지만 사회의 변화 역시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무엇이 학교를 변하게 한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결국 변하게 만든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학교변화는 결국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강퇴생과 자퇴생 등의 학교 부적응의 문제나 왕따의 문제, 학교교육의 기능상실의 문제, 입시중심교육으로 인한 창의적 교육의 부재의 문제 등이 학교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그 결과 대

안학교가 등장하게 된다. 대안학교는 결국 공동체를 의미한다. 제도로서의 학교가 공동체라는 내재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생산하지 못하면서 등장한 대안학교는 공동체로서의 학교(또래집단으로서의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에 의한 학교, 공동체로 향한 대개체로서의 학교의 성격을 띠게 된다. 방과 후 학교, 탈학교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지역공동체 대안학교, 생태교육 대안학교 등의 출현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탈 제도화의 시도이며, 이는 획일화와 표준화, 몰개성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주체의 특성화와 혁신을 추구한 학교 밖, 학교 옆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인구변화는 학교변화를 이끄는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 변화요인이다. 서울을 예로 들면, 인구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거주인구의 지역 간의 편차가 커지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999년에 37.3명인 반면 2009년에는 28.9명으로 줄었다. 이는 중학교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35.6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한 것과 고등학교의 경우 49명이 34.8명으로 감소한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도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뉴타운 건설지역은 전입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0명을 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심과 같이 지속적으로 거주인구가 주는 지역은 전체 학급수도 줄고 학급당 평균학생수도 15명 내외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수가 104명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14.9명에 불과하다. 종로구 가회동의 재동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384명이며, 필운동의 매동초등학교는 288명에 불과하다. 중구의 충무초등학교는 2005년 전체 23개 학급에 540명이 재학하였는데 2010년에는 17개 학급 365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도심부의 거주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도심부 초등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도심부 초등학교는 학교공간의 잉여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안학교의 학교 밖에서의 변화나 방과 후 학교와 같은 학교 옆에서의 변화는 다른 학교 안에서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 공유를 시작하다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용 요구가 증가함으로써 국내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을 정하여,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학교로서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는 공동체와의 공존과 공유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공동체와의 공존을 위해 학교는 공동체와 시설의 공유, 교육의 공유, 인재의 공유, 가치의 공유를 추구해야 한다. 대체로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의 단계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공유로 전이한다.

학교가 공동체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유

표 1. 학교와 공동체의 공유의 단계

| | | |
|-----|----------------|---|
| 1단계 | 시설의 공유 |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데 이는 학교시설의 개방, 대체로 운동장 개방에서 출발한다. |
| 2단계 | 교육프로그램의 공유 |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교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공유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학생을 위해 지역주민이 교육에 참여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공유 |
| 3단계 |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의 공유 | 학교시설의 복합화: 학교시설 신축시 복합화를 통해 시설과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의 복합적 공유로 발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학교 밖에 지역주민과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하여 건립 |

는 시설의 공유, 교육프로그램의 공유,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의 공유의 단계를 거친다.

3. 학교와 공동체: 대안학교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파악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학교를 벗어나 공동체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 공동체에 의한 운영, 공동체와의 협력에 의한 학교 기능의 재정립, 공동체를 위한 학교의 기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 대안학교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대안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교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국내 대안학교는 1996년 대안교육 관련자 모임에서 ‘제도 안’, ‘제도 밖’, ‘제도 곁’의 대안교육으로 유형화하여 처음 분류되었다.

○ 제도 안 학교: 기존 학교제도 속에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며 거창고등학교, 풀무원업고등기술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 제도 밖 학교: 기존의 학교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 대안교육을 실천하며, 초기에 비인가학교로 출발한 간디학교, 안산의 들꽃피는 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 제도 곁 학교: 기존의 학교교육을 그대로 둔 채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학교교육이 빠뜨리는 부분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 특히 학부모가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성남에서 시작한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방과후 학교)²⁾, 서울의 ‘따로 또 같이하는

1) 이종태(2001)의 저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참조

2)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삶과 교육을 결합하려는 새

학교'(중고등학교 대상의 주말프로그램), '엄마사랑공부방'(학부모 품앗이 형태로 운영) 등이 이에 속한다.

이종태는 그의 저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를 교육의 내용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구분한다.

- 자유학교형 대안학교: 영국의 서머힐 학교가 원조이며 일본의 기노꾸니 어린이마을이 여기에 속한다. 아이들을 학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 생태학교형 대안학교: 1982년 영국 하트랜드에서 설립된 '작은 학교'가 시초이다. 인도태생의 평화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사티쉬 쿠마르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는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개교한 간디청소년학교, 푸른꿈고등학교, 실상사 작은학교, 변산공동체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 재적용학교형 대안학교: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강퇴, 자퇴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0년대부터 확산된 미국의 자유학교나 일본의 생활학교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성지고등학교 이외에도 화랑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
-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 매우 독특한 교육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서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또는 슈타이너 학교)가 여기에 속한다.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반으로 1919년 처음 설립된 발도르프 학교는 현재 세계적으로 600여개가 넘게 설립되어 있으며, 취학 전 교육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풀무원농업학교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 학교와 공동체: 모두를 위한 학교, 공동체 중심으로의 학교

공동체학교는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에서 나온 시도인 '교육문화협동조합' 운동으로 이어짐.

발한다. 지역사회학교로 표현되는 커뮤니티스쿨은 학교가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달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1930년대 미국 미시간주(州)의 플린트시에서 학교시설이 1년 중 1/3은 방학과 공휴일로 유휴시설이 되어 사용되지 않고, 하루 중에는 8시간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사회학교운동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학교는 도서관·실험실 등을 사회에 개방,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도시나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과 노작교육, 지역사회조사,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한다. 지역사회학교로서의 공동체학교는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와 대상, 교육의 내용, 추구하는 가치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지역공동체 학교: 농촌이나 어촌 등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생활공동체의 지역기반을 강하게 갖고 그 지역의 공동체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 사회공동체 학교: 지역기반에서 벗어나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이 운영주체로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이용대상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열려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 희망공동체 학교: 소외계층, 소수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함께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과 더불어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학교를 의미한다.
- 마을이 학교다: 지역 사회와 밀착하여 학부모와 학생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재미나고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대안학교를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내세우며 제시한 개념이 '마을이 학교다'³⁾
- 혁신학교: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행정 등의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는 학교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며 핀란드 등의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 혁신학교의 개념이 소개되었다.⁴⁾
- 학교와 공동체 사례: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로의 변신,

3) 박원순(2010)의 저서 『마을이 학교다』를 참조

4) 경태영(2010)의 저서 『나는 혁신학교에 간다』를 참조

군포중학교 '오바마 학교'⁵⁾

군포시 당동 군포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산본신도시 개발로 밀려난 대표적인 군포시의 서민지역이다. 그러다보니 당동의 군포중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한때 기피학교로 전락했다. 이런 군포중학교가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게 된 계기는, 학교 안 학교로서의 오바마학교⁶⁾를 개설하면서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이다. 오바마 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날마다 오후 6~9시 열린다. 유료로 특기 적성 수업이나 교과 수업을 받는 여느 학교의 방과후 학교와 달리,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가 목표다. 군포중학교의 오바마 학교 운영 취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고 사회복지사들도 학교에 배치해, 부모나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강사들은 통기타, 네일아트, 영어회화 수업을 하고, 군포시 당동 청소년문화관은 해금과 연극놀이 수업을 맡았다. 자원봉사에 나선 지역 고교생 23명이 교대로 1~5명씩 학생을 모아 공부하는 걸 돕고,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14명도 돌아가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심리 멘토링을 한다. 오바마 학교의 13개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다. 전교생 5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 학교로 지정된 오바마 학교는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면서 동네와 학교를 바꿔냈다. 지원자가 줄기만 하던 군포중은 올해 1학년 신입생 5학급 200여명을 모두 1순위 희망자로 채웠다. 오바마 학교 시작 이후 아이들의 구김살도 없어졌고 학교를 보는 사회 인식이 달라지면서 군포중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당동 주민들의 축제인 '아구랑'에서 오바마 학교 학생들은 댄스와 기타, 사물놀이, 록밴드 등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뽐냈고 마을 축제에도 나선다.

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모두를 위한 학교,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학교

•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의 대두

2000년 12월 일본의 '교육개혁국민회의'는 교육을 바꾸는 17가지 제안 중 지역의 독특한 요구에 기반을 두고 지

역이 운영에 참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를 제안한다.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는 지역공동체학교로 일컫는 커뮤니티 스쿨이다. 문부과학성은 2002년부터 커뮤니티스쿨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운영을 위한 실천 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전국의 초/중학교 9개교를 연구지정학교로 정하여 시범운영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의 목표는 공립 초등학교의 모든 기능을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생애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결국 사회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과 학교가 결합하는 학사융합, 학사협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사융합에 의한 지역, 공동체, 학교가 참여하는 일본 커뮤니티형 학교는 결국 '학교만들기-마을만들기-아이키우기'의 삼위일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일본 치바현 아끼즈 초등학교의 학사융합(학사연계를 넘어서 학사융합으로 발전)

치바현 최초의 커뮤니티 스쿨로서 '배움과 시설이라는 학교기능을 지역에 열다'라는 슬로건 하에 학사융합의 지역공동체 학교로서의 기능을 시작한다. 학사융합의 배경에는 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저출산/핵가족화에 따라 교육의 책임이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 후 시간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장년 및 노인층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발맞춰 어린이를 인연으로 사람과 사람, 학교와 지역을 잇는다는 개념이 학사융합이다. 학사융합은 협의의 학사융합(학과수업동안의 학사 융합)과 광의의 학사융합(방과후/휴일기간의 생애학습으로서의 학사 융합)으로 구분된다.

치바현 아끼즈 초등학교의 학사융합의 예를 들어본다면 협의의 학사융합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 교류활동>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연간 50~105시간 활동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2만 명이 참여한다.

이 학교의 시설의 개방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의 모든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며, 특히 학교 내에는 연간 1만명이 이용하는 '지역커뮤니티 룸'이 있는데 이곳의 열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교육의 개방으로서 지역 내 음악계 서클과의 합동합창이나 연주 등을 통해 충실한 수업내용을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학교가 추구하는 학사융합의 가치는 학교운영의 개

5) 한겨레, 2011. 04. 24일자 참조

6) 오바마학교는 '오직 바라고 마음먹은 대로 될지이다'라는 뜻을 담아 줄여 붙여 만든 이름이다.

혁만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다음 세대를 육성, 지역만들기까지를 포함하여 커뮤니티스쿨이 아니라 스쿨커뮤니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지역민과 학교가 융합함으로써 범죄가 없는 마을/지속가능한 마을/시민자치에 의한 마을가꾸기가 가능해졌다.

● 교토시립 고쇼미나미 소학교의 학사융합

교토시립 고쇼미나미 소학교는 학교의 종합교육으로서 지역의 베테랑 장인을 초청해서 전통공예수업을 실시한다. 1995년 개교한 신설학교인데 이 학교는 시내의 취학아동이 감소하면서 5개의 소학교, 9개의 학구를 통합해서 생겨난 통합교이다. 이 때문에 자치연합회의 대표자로서 학구별 대표로 9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풍부한 지역인재를 살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커뮤니티의 창조를 지향하여 2002년 지역학교협의회인 '고쇼미나미 커뮤니티'를 발족하였고 현재는 지역대표자와 PAT 대표 등 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쇼미나미 커뮤니티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12개의 소 커뮤니티로 나뉘어 활동하며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굵은 파이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색이 풍부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토다운 독특한 수업을 개발했는데 그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종합학습으로서 5학년 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공예수업이다. 교토고쇼(京都御所)와도 가까워서 이곳에 있는 다양한 전통공예의 장인을 자원봉사자로 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통공예학습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여 실시하게 된 수업이다. 교토만의 전통공예품 만들기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교토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공예의 훌륭함을 재발견하고 나아가 장인들의 공예품 제작에 대한 열정과 작업방식까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 학교의 학사융합의 목적이며 성과이다.

● 일본 최초의 지역립(地域立) 소학교 고탄노 소학교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커뮤니티 시범학교로 지정된 도쿄도 아다치구의 고탄노(五反野) 소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2003년 1월,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학교이사회 조직을 발족하였고, 2004년 11월 학교이사회가 학교운영협의회로 자리 매김되어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구(區)교육위원회로부터 커뮤니티스쿨로 인정받게 된다.

이 학교의 학교이사회는 지역대표인 이사장 이하 학부

모대표 3명, 지역대표 3명, 학교대표 3명, 행정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이사회는 매월 1회 학교 내의 교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지역의 역할에 대해 각 회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학교이사회에서 수업진단과 학교평가도 실시하며, 교원의 평가와 인사에 대해서도 이사회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교이사회가 교장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결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교장도 학교이사회가 민간에서 교장을 채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공모를 실시하여 선발하였다. 학교이사회는 보다 나은 학교운영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한다. 인사 잘하기 운동, 소리내어 읽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학교운영에 반영시키는 고탄노소학교의 노력은 글자 그대로 '지역립 소학교'라고 부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탈학교 아이들의 천국 도쿄슈레7)

1992년에 문부성은 부등교는 사회적 문제라고 천명 한 후에 등교거부현상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해 '학교 외의 배움터'에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문부성의 결정까지 얻어낸 것은 일본 시민사회와 학부모 운동이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문부성 집계에 따르면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초중고의 등교거부자는 1997년 이미 1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1983년 도쿄에서는 '등교거부를 걱정하는 전국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지메를 당해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당시 초등학교 교사 오쿠치 게이코씨는 이 모임에 중심멤버로 참여하여 등교거부 상담, 정보교환, 세미나 등을 통해 부등교 아이들 문제를 여론화해 가기 시작한다. 이 모임에는 73개 단체 2만여명이 참가하였다. 1985년 게이코씨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경 기타 지역에 등교 거부자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인 도쿄슈레를 만들었다. 의식있는 부모, 교육자, 문화연구가, 자원봉사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학습공간으로서 시작된 곳이 도쿄슈레이다.

도쿄슈레는 1985년 동경도 기타쿠 히가시쥬조에서 시작하였고 1991년에 오지로 이사했다. 이후 1994년에는 오타, 95년에는 신주꾸에도 공간을 열어서 현재 세 개의 공간에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오지학교에 100명, 오지학교의 한 학부모의 기부로 1994년에 문을 연 도쿄슈레 오타에

7) 조한혜정(2000)의 저서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및 도쿄슈레 홈페이지(www.shure.or.jp) 참조

40명, 3년 전 이지매로 아이가 자살한 사건을 뉴스로 보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이 동경의도심부 공간에 마련된 도쿄 슈레 신주꾸에 40여명이 다니고 있다.

도쿄슈레에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닌다. 학교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학교 오는 시간은 자기가 정한다. 교사와 직원은 20명 정도이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자원 봉사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과운영은 아이들이 매일 그리고 매주하는 미팅에서 결정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통신대학을 포함하여 상급학교와 대학에 대부분 진학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곧바로 취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정도를 하면서 지내거나 제3의 길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예산은 약 1억엔, 대부분 학부모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책 판매와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금도 적지 않다.

이 학교는 학부모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문부성에서는 연구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요다재단에서는 장애가 있는데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이들을 위해서 가정학교 홈슈레 제도를 만들 때 통신교육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주었다. 홈슈레는 교류지와 편지, 전화를 통하여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또 서로를 연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5백40 가정이 관계하고 있고, 교류지는 약 7천부 정도 나간다.

• 뉴욕의 트루스(TRUCE)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뉴욕의 트루스이다. 뉴욕 니콜라스 에비뉴 147번가에 위치한 할렘가 청소년 교육센터 '트루스'(TRUCE: The Renaissance University for Community Education). 버려진 폐교에서 연극 그림 영화 사진을 가르치는 뉴욕 할렘가 청소년 교육센터 '트루스'는 가난과 범죄로 찌른 아이들에게 어두운 과거를 잊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12-19세 청소년에게 미술과 시, 연극, 그래픽 디자인, 사진, 지역신문 제작, 영화, 다큐멘터리 촬영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학생 185명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85년 뉴욕 공립학교 영어교사인 로라 부렐이 빈민가 학생들의 자퇴와 낙제를 막기 위해 시작해 24년 동안 계속됐다. 이 학교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얻은 성과는, 방과후 문화예술을 배우는 아이들은 범죄로부터 멀어지며, 어두운 과거를 잊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작품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맛본 학생들은 학업에도 큰 흥미를 갖는다. 2009년 기준으로 이 학교 12학년 학생 41명 중 38명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전공은 경영과 공학 등 제각각이지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그래픽이나 디자인이나 연극, 영화, 문학 등을 선택한다.

트루스 소속 학생들은 후배들의 탈선을 막고 학업을 격려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대표가 20-30명 어린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교 성적과 출석률, 가정생활 상담을 해 준다. 문제가 생기면 복지 코디네이터에게 보고된다. 특정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 선생을 연결해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트루스 12학년 학생 15명은 뉴욕시 전체 평균 점수보다 33% 높은 성적으로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된다. 아울러 이 센터는 최근 불거진 이미지 흑인과 미국계 흑인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노력을 진행한다. 2009년 여름방학 과제 주제는 평화의 여름 'summer of peace'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 친구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공동체 화해를 모색하는 신문, 다큐멘터리, 그림, 시 연극 등을 제작해야 한다. 완성 후에는 지역주민과 부모님 앞에서 발표한다. 신문은 1년에 3번 발행해 할렘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이 학교는 도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가난과 범죄로부터 탈출시켜 예술가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모두를 위한 학교를 실현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애우와 함께 하는 독일의 인생보조(Lebenshilfe)

독일의 인생보조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그 가족이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단체로서 장애인의 가족들에 의해 1958년 처음 설립되었다. 정신지체 장애인 또한,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프라이부르크 인생보조의 경우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1987년부터는 성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프라이부르크 인생보조는 2008년 9월 기준으로 382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곳의 목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앰블런스가 되는 것이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위해 시설에 있으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평범한 환경에 살면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인생보조

학교설계의 새로운 방향

가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1985년부터 시작한 여행강좌도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1년 40회 정도 장애우들로부터 직접 여행신청을 받아서 떠난다. 또한, 노래강좌는 국경없는 노래하기로 전 세계의 노래를 부른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가족지원사업, 여가를 위한 활동, 편안한 거주를 위한 도움, 특수교육과 테라피 등이 있다.

- 가족지원사업: 정신지체 장애인의 가족이 집을 비운다거나 기타 이유로 요청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아준다.
- 여가시간을 위한 활동: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그룹단위, 혹은 수업을 통해 배운다. 요리, 테니스, 어린이를 위한 서커스, 청소년을 위한 등산, 춤 등 다양하다.
- 편안한 거주를 위한 도움: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상담과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특수교육과 테라피: 정규교육과정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 기타: 유치원 운영 등

인 사회구성원에게 열린 시스템으로 작용할 경우 사회공동체로서의 학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로서의 학교를 벗어나 공동체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 공동체에 의한 운영, 공동체와의 협력에 의한 학교 기능의 재정립, 공동체를 위한 학교의 기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학교로서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는 공동체와의 공존과 공유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공동체와의 공존을 위해 학교는 공동체와 시설의 공유, 교육의 공유, 인재의 공유, 가치의 공유를 추구해야 한다.

6. 모두를 위한 학교,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학교

학교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목적과 추구해야 할 가치의 문제와 같은 교육 내부의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변화를 이끄는 주체의 문제, 변화를 수용하는 공간의 문제, 변화를 공유하는 사회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학교 변화는 결국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의 참여정도와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가치의 문제에 의해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 지역이 학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일 경우 지역공동체 학교로 범주화할 수 있고, 학교가 지역기반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

커뮤니티형 학교의 유형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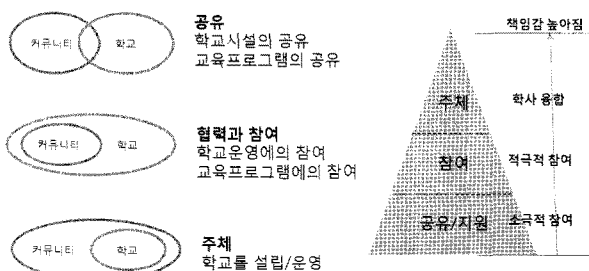


그림 1. 공동체중심으로서의 학교와 주체로서의 주민의 역할